

# “전남대병원, 지방 최초 ‘TAVI’ 시술 500례 달성”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한 교수

시행 10년만 전문·안전성 입증... 권역심뇌혈관센터 체계적 시스템 도움  
심장전문 ‘하트팀’ 운영... 찾아가는 진료·재활치료 연계 시스템 확대  
보험 적용 확대로 경제적 부담 줄어... 호흡곤란 땀 반드시 병원 찾아야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방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을 시행한지 10년만에 5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제와 심장내과·흉부외과·영상의학과와의 협력진료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한 교수가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치료 시술인 TAVI 시술의 500례 돌파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부터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아오다 호흡곤란에 따른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판정된 80대 남성에게 전남대병원 500번째의 TAVI 시술을 시행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해당 환자는 시술 후 바로 안정을 되찾아 3일 후인 5일 퇴원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대동맥 혈액의 좌심실 역류를 막아주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흉통·실신·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오랫동안 방치하면 2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지난 2015년 지역 의료계에선 처음으로 TAVI 시술을 시행한 김주한 교수팀은 2019년 100례·2022년 200례에 이어 마침내 500례를 달성했다. 전남대병원의 TAVI 시술 500례는 서울 지역(5개 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원에서는 최초

의 기록이자, TAVI 시술이 표준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응급진료와 조기재활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건강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수많은 환자 진료 경험이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어르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에서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자신있게 밝혔다.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법은 현재 약물치료는 불가능하며, 수술 또는 시술로 가능하다. 개흉 수술로 진행되는 대동맥판막 치환술(SAVR)과 동맥을 통해 인공적인 판막을 삽입하는 TAVI 시술이 있다. TAVI는 개흉을 하지 않아 시술 및 회복 시간이 짧고, 개흉 수술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시술 3-5일이면 퇴원 가능하고, 고령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데다 흉터가 없어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TAVI 시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AVI 시술 증가에 대해 김 교수는 “시술 초기에는 8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시술의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70-80대 초반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 특히 보험 적용 확대 후 비교적



김주한 교수

젊은 층의 시술 건수가 눈에 띄고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2년 5월부터 80세 이상이거나 수술 불가능·수술 고위험군 환자일 경우엔 본인 부담 80%에서 5%로 대폭 감소된 보험급여 기준 변화도 TAVI 시술 증가에 한 몫 했다.

전남대병원은 TAVI 시술 성공률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전남대병원 TAVI 시술팀의 강점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은 물론 급성기 환자에게 신속히 대응하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남대병원은 심장내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최적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심장전문팀인 ‘하트팀(Heart Team)’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학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확한 판막 크기 측정과 시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은 대동맥판막 협착증 조기 진단을 위해 증상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와 재활치료 연계 시스템을 확대해 지역민들의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TAVI 시술 이후 정기적인 외래 추적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교수는 시술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혈압·맥박 관리와 감염



지방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500례를 달성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한 교수가 시술하고 있는 모습.

예방을 위해 구강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무엇보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도 줄고 안전한 TAVI 시술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느낌의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검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2000례 돌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 2009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수술용 로봇 ‘다빈치S’를 도입한 화순전남대병원은, 2019년 11월 ‘다빈치Xi’ 모델로 교체해 로봇수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호남지역 유일하게 단일 절개장 로봇인 최첨단 시스템 ‘다빈치SP’를 추가 도입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빈치SP’는 3차원 고화질 카메라와 로봇팔에서 나와 단일절개장을 통해 진입해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술기기는 3-4개 이상의 절개 부위를 만들지만, ‘다빈치 SP’는 한 개의 절개창으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 시간도 빨라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 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체외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암 치료를 위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로봇수술(S-Xi-SP)은 2020년 150례에서 2021년 302례, 2022년 339례, 2023년 358례, 2024년 405례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월 말 기준 147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누적 2,000례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진료과별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외과 23%, 흉부외과 2%, 산부인과 1% 순이었다. 비뇨의학과(1,588례)에서는 전립선암과 신장암, 방광암, 요관암 치료에 로봇수술이 많이 활용됐으며 외과(508례)에서는 대장암,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수술에 적용됐다.

또한 흉부외과(43례)에서는 폐암, 산부인과(20례)에서는 자궁암과 난소암 치료에 로봇수술 기법이 도입됐다. 이외에도 자궁근종, 난소낭종, 담낭용종, 요로결석, 요로기형, 양성종양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다빈치 로봇수술을 적용해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활용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이번 로봇수술 성과는,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축적된 로봇수술 노하우와 뛰어난 수술 결과는 타 병원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 병원의 강점이다”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기 활용과 높은 만족도의 진료 제공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 건강 증진·의료기기 안전 강화 기여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대병원 및 화순전남대병원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택원 전남대병원 센터장은 “의료기기 부작용 수집·분석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더욱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화순전남대병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2013년, 화순전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역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